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서 광주시 선수단 선전

“대한민국 기술인재들의 리옹에서의 귀한 결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광주시 선수단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강 시장은 광주시 선수단에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셨다. 리옹에서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광주시 선수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7개 직종 16명(선수 9명, 지도교사 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따냈다.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인 김겸은·김용현 선수가 모바일로보틱스 직종에서 금메달을, 정현문 선수가 클라우드컴퓨팅 직종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인 장원형 선수는 산업제어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출신의 신준호·김지한 선수는 메카트로닉스 직종에서 은



광주시 선수단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7개 직종 16명(선수 9명, 지도교사 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6개의 메달을 따냈다. 사진은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인 김겸은·김용현 선수가 모바일로보틱스 직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

광주시 제공

메달을, 이예찬 선수는 IT네트워크시스템 직종에서 동메달을 수상했다.

의상디자인 직종은 모다인패션디자인 학원 출신의 강태석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선수 9명 중 8명이 제조기술, 공학, IT(정보기술), 예술 분야에서 메달을 획득, ‘차세대 기술인재양성 도시 광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광주 선수단

의 선전에 힘입어 금 10, 은 13, 동 9, 우수 11개를 획득해 종합 2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게는 금·은·동메달 순위에 따라 상급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또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 혜택, 은퇴할 때까지 계속중 사장려금(매년 505만~12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노병하 기자



전남대 학생들,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대상

전남대학교 식품공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학술대회에서 논문 구두발표 대상과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22일 전남대에 따르면 학부생들이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김지원), 우수상(김종혁, 이영서), 장려상(홍지우)을 한꺼번에 수상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융합식품바이오공학과 석박사과정생들도 석사구두발표 대상(김혜진)과 우수상(이선진)을 차지한 데 이어, 박사구두발표 최우수상(윤석민), 우수포스터상(홍성진, 송시훈, 김옥철)을 휩쓸었다.

산업대학원 푸드테크학과에서도 이다은 학생도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김은지 기자



광산소방, 긴급구조지원우수기관 3곳 선정

광주 광산소방서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육군 제6753부대1대대, 광산구보건소, 신가병원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는 연 1회 실시하며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각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유지상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평가(일반현황, 긴급구조대응활동, 인적자원, 물적자원)와 2차 평가(종합평가)를 실시해 긴급구조지원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관계기관 간 유기적 대처를 통해 시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산구-지역병원, 퇴원환자 재가복귀 협약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일 광주セント럴병원 등 9개 지역 병원과 함께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첫 단추다. 이날 광산구와 △광주セント럴병원 △KS병원 △첨단우리병원 △광주보훈병원 △광주열린병원 △송정사당병원 △슬기로운재활의학과병원 △하남성심병원 △우리동네의원 등 총 9개 병·의원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퇴원 예정 환자 중 사회경제적 형편, 신체·기능 수준 등을 파악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광산구는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대상자를 찾아가 방문상담을 통해 보건의료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김상철 기자



광주 북구의회, 3분기 정례표창 수여식 개최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0일 2024년도 3분기 정례표창 수여식을 개최해 의정발전·사회봉사·주민자치 3개 분야에 공이 있는 북구 주민과 공무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북구의회는 이번 표창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이바지한 주민과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주민 29명과 공무원 7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무송 북구의장은 “의정 발전·주민자치·사회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여준 구민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의회도 북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대병원 김자혜 교수, 최우수 포스터상 수상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생물학회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김자혜(사진) 교수가 지난 5~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생물학회에서 최우수 포스터상을 수상했다.

2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김 교수는 ‘뇌 아밀로이드 PET에서 영상획득 시간 단축을 통한 최적의 센틸로이드 임계값’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 포스터상을 받았다.

김 교수는 뇌 아밀로이드 PET 영상



촬영 시 기존 20분 촬영에서 5분 촬영으로 영상획득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최적의 센틸로이드 값을 사용하면 20분 촬영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뇌 아밀로이드 PET 영상진단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PET 영상획득시간이 길어서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들에게 단축된 PET촬영이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장기표 원장의 빈소

22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 빈소에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빈♥’ 손예진, 2살 아들과 카페 나들이?...환한 미소

배우 손예진이 근황을 공개했다.

손예진은 지난 21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비 온 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이제 아아 시즌은 끝난 건가요?”라고 적었다.

“더위가 가신 건 너무너무 좋는데 너무 갑작스레 떠나서. 좀 당황.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라고 덧붙이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

사진 속 손예진은 통창이 돋보이는 카페에서 누군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다. 테이블 위에 블럭이 가득 놓여져 있어 아들과 외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손예진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캐주얼한 차림으로 청순한 매력을 뽐냈다.

한편 손예진은 배우 현빈과 2022년



3월 결혼했으며, 같은해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수가 없다’ 촬영에 한창이다.

뉴시스

권은비·양세찬·송건희 삼각관계 “집에서 요리해줘”

코미디언 양세찬과 가수 권은비, 배우 송건희가 삼각 관계를 형성한다.

22일 방송되는 ENA·E채널 ‘시골에 간 도시 Z’에선 권은비가 송건희와 친분을 자랑한다. 권은비는 “이번에 건희 씨가 예능을 한다고 해서 응원차 나왔다”고 말하더니 송건희와 눈을 마주치고 둘만의 수신호를 나눠 모두를 놀라게 한다. 이를 본 양세찬은 “둘이 사이가 좀 있구나”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권은비는 송건희를 향해 대놓고 “잘생겼다”고 칭찬한다. (사진)

송건희는 “은비 누나가 요리를 잘한다”고 하자 이은지는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는 건지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이때 권은비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 이때 권은비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 자주 본다. 얼마 전에도 만났다”고 한다.



양세찬이 권은비에게 “너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구나”라고 묻자 권은비는 “난 잘생긴 사람 안 좋아한다. 귀여운 사람 좋아한다”고 한다. 이에 정동원이 “세찬이 형 귀엽다”고 하자 양세찬이 얼굴을 붉힌 채 “난 진지하게 빠져든다”고 답한다. 순간 권은비가 양세찬 옆에 앉아 얼굴을 뺨히 바라보더니 ‘난 사랑에 빠졌죠’를 부른다.

뉴시스